

“현장 목소리 새겨들어 일자리 확충”

도의회 김규태 경건위원장 선출



도의회는 16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제건설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초선의 김규태(새누리·동해·사진)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전체 44명의 의원 중 36명이 투표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새누리당 도의원총회에서 당 후보로 공식선출됐으며 이기찬 전 위원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6월까지 경제건설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김규태 신임 경건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확충 문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도민들의 최대 화두는 경제문제에 쏠려있고 경제는 곧바로 일자리 확충과 직결된다”면서 “숫자 위주의 일자리 확충보다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

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 최대 현안인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나 폐광지역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많이 있는데 할말은 하면서도 불협화음이 없도록 소속 의원 모두의 충지를 모아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계올림픽 관련 철도와 도로 등 각종 SOC를 어떻게 관광상품과 연계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도 주어진 시간내에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파와, 학연, 지연을 모두 떠나 독단과 독선이 아닌, 공정하고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실적공사비 배제 적용범위 논란

당초 9일 이후 공사 합의 업계 이전공사 적용 요구

평창올림픽경기장 주변 송천하천 정비 공사(190억원) 등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을 적용,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속보=강원도내 지자체와 교육청 등 공사 발주기관들이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 주범인 실적공사비를 배제(분지 3월 9일자 6면)키로 한 가운데 이미 설계를 마친 공사에도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강원도와 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계약예규)’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되면서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발주기관에서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홍천 양덕원천 하천재해 예방사업(100억원)과 2018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는 지난 9일 이전에 실적공사비를 반영해 설계를 마치고 납품한 공사라도 현재 공사비와 괴리가 큰 경우 실적공사비를 배제하고 표준품셈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현재 실적공사비를 반영해 설계에 들어간 공사는 현실과 공사비와 괴리가 크기 때문에 발주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공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9일 이전에 완료된 설계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설계를 다



동해 출신 김규태 신임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이 16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도의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장에 김규태 의원

공석이었던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장에 초선의 김규태(62·동해·새누리당) 의원이 선출됐다.

16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제건설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김 의원은 이날 표결에서 출석 의원(36명) 만장일치로 신임 경건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 위원장은 “기업유치는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접근해 지원하겠다”며 “노사민정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경력을 살려 사람에 대한

투자로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해 출신으로 북평고를 졸업한 김 위원장은 쌍용자원개발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강원도본부의장, 강원도 노사민정위원회 근로자대표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